2022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요일) 15:00 ~ 17:00

○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병우, 양규혁, 김남수, 정용채, 박성수, 주상현, 최옥채, 김용우, 허연, 유명환, 이현욱 위원

○ 불참자 : 홍철운, 안문석, 황인호, 박상민 위원

○ 상정안건

- 2022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 2022년도 임금협약안

간사 (이경환)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2022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2022년도 임금협약안**」 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재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보완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일반직위원의 임기가 1년인 바, 위원장의 임기 또한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정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우) : 양병우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전체) :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양병우) :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양병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중 **「2022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재정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함에 일반직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김용우)	작년 한 해 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양병우 위원님의 연임을 추천합니다.
위원 : (전체)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 (양병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추천과 재청으로 양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양병우)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김명숙)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에 대하여 설명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명회계법인 회계사님께서 감사보고서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회계사)	재무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양병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윤을 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대한 운영상태, 건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수익의 변화는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감가상각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양규혁)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해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당히 왜곡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회계사)	5년마다 전면 재평가를 하는데 그동안 재평가를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 가격 적용은 1억 원 이상의 평가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있는 대장가액과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금액 변동에 상관없이 5년 주기로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에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있어 재평가 비용 자체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 시가표준이라는 지표는 평가가격으로 써서 안 되지만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강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평가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설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 (양규혁)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나올 때까지 현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김용우) 결산개요에는 대학회계 부분만 있는데 감사보고서 24쪽 종합재무제표에는 산학협력단 회계, 발전기금회계가 함께 있습니다. 이쪽도 감사를 진행하셨나요?

정명회계법인 : (회계사) 감사보고서의 종합재무제표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대학 전체 재정 흐름을 가늠하는 데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그럼 산단과 발전은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나요?

정명회계법인 : (회계사) 맞습니다. 산단과 발전 각각 관련법에 따른 법적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 (박성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회계, 발전기금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종합재무제표를 통해 전체 흐름과 회계 간 전출입 사항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재무제표는 참고자료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작성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재무제표 요약만 가지고는 대학의 흐름, 재정건전성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경영지표 몇 가지를 포함하여 함께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명회계법인 : (회계사) 재정건전성 등은 세입세출결산의 잉여금 규모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회계가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속적인 보완이 이뤄져야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재무제표가 경영평가나 재정건전성 자체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일반기업에서도 재무제표가 말씀하신대로 성과분석이 없이 진행되나요? 대학의 재정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회계사) 삼성전자에서 진행되는 수십억 원의 감사에서도 삼성전자의 경영평가나 재정상태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장부를 작성하는데 있어 회계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 이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이지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애널리스트, 은행의 담당자, 투자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본질은 아닙니다.

위원 : (양규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감사는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정보가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학교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일종의 경영자 책임이라 외부감사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 (박성수)	과거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중기재정운용계획입니다. 재무과는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이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대로 분석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실무선에서 어렵다면 용역계약을 맺어 학교 재정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하는지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재정위원회에서 시계열자료 등을 통해 흐름을 보면서 재무제표를 봤으면 하는 뜻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재무제표를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 (주상현)	결산서 27쪽 입학금 관련해서 미수금이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낸 건가요?
재무과장 : (김명숙)	대학원생에게 이중 지급된 장학금이 있습니다. 회계기간 내에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 (주상현)	네, 37쪽에 보면 세출결산 소관별 총괄표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있고 소관별, 단대별로 편차 또한 심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함께 묘안을 찾아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 (박성수)	불용액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의 여파입니다. 특히 단과대에서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해 연도에 쓰이지 못한 불용액은 다음 회계연도 때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불용액이 잠시 후 논의되는 추경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최옥채)	2년 전 교과과정을 전면개편 할 때 강사료 지출을 줄이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 강사가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강사료 지출이 많아진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로 삼성문화회관은 운영에 있어 적자 폭을 많이 줄였는지요?
위원 : (박성수)	삼성문화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거의 개관을 못해서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운영을 못할 즈음에 특이소요로 국고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 (박성수)	국고를 주로 하여 냉난방기, 안전설비, 폭발위험이 있는 지하 보일러 등 시설을 전면 개보수 했습니다. 올해부터 개관을 시작하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테리어 등을 진행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 (양규혁)	강사료 부분은 예산보다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실제 전공진로설계를 넣어 시간강사가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 본부의 취지는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다 오픈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오픈한다든지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아직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뜻 또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네, 우리 학내에 학교기업이 점차 많이 생기고 있고 국가에서도 학교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충당금을 내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윤이 날 때는 괜찮지만 적자가 나고 경영이 어려우면 학교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 : (박성수)	말씀하신 사항은 발전재단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고 5억, 자체예산 1억으로 총 6억을 지원하며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충당금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규정을 정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충당금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양병우)	삼성문화회관은 오래된 숙제인데 국장님이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기업, 수익을 내는 기관들 특히 소비조합 같은 경우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도 사실은 충당금이 없기에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학생,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큰일을 한 번씩 겪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고 그것이 또한 학내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전체)	동의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양병우)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김명숙)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양병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정용채)	금년부터 10억 원 이상 추경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다 통과되었는데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를 정읍첨단과학캠퍼스 옆 부지에 설치하는 건이 재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 가결되었습니다. 총 18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재공고를 했음에도 우리 대학만 사업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땅을 사줄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토지구입하기로 했는데 기획위원들께서 문제를 삼은 것은 센터를 세운 후 자립화방안이 확보되었느냐는 내용입니다. 즉, 토지구입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 사업을 유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대에서 충분히 자립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일단은 보고 전에 추경에 대해 질문이 없으시면 약대 센터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 : (김용우)	매년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용 소프트웨어가 13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각 과에서 구입했었지만 일괄성이 있어야한다고 하여 정보전산원에서 3년 전부터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13종 임대차 라이선스가 5억 8천정도입니다. 국립대육성사업에서 4억을 받고, 추경을 통해 1억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 등과 관련하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육성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내년에는 대학회계에서 한 번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있을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위원 : (정용채)	국립대육성사업에서 단골로 지적받는 것이 중앙도서관의 해외전자저널 구입비와 정보전산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재작년 16억, 작년14억으로 줄였고 올해는 1억 더 낮춰서 13억으로 했고요. 사실은 학교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십시일반으로 나누자는 차원에서 국립대육성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협조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정보화 예산은 2~30년 동안 항상 문제가 있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획처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 (박성수)	이것은 예산 효율적 활용의 문제입니다. 기획처는 대학회계 주요사업비를 심의하고 국립대육성사업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나눠서 예산을 쓰자는 입장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때 사업비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국립대육성사업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나눠서 오면 시차가 있어 입찰이나 구매 등을 진행할 때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 절대액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므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같이 합을 맞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행정의 묘를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 (양규혁)	이 문제는 대학 구성원들이 암묵적 동의하에 협력해 나가야합니다. 경직성 경비는 줄어드는 게 아닌데 전체 대학회계 재정은 등록금 동결로 계속 줄어드니까 각종 사업비를 쓰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적절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또 사업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정보전산원은 대학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예산 투자가 거의 없고 항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정보전산원만큼은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옥채 위원님께서 시간강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국고에서 내려온 시간강사 처우 개선비가 있네요.
재무과장 : (김명숙)	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국고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대학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로 딱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50 대 50이었다가 최근에는 국고70 대 자체3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어떻게 변화될지는 솔직히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 자립화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대 발전을 위해 약대 교수님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책임자 : (김훈주)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 자립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 : (양규혁)	운영비는 충분히 자체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이 걷도록 되어있는데 산단과 센터의 비율을 정하여 사전에 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책임자 : (김훈주)	네, 간접비 부분은 그렇고요. 앞서 설명 드린 산업자원부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는 바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획위원회 안건이 재정위원회로 올라온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 : (정용채)	토지 구입은 승인할 수 있지만 향후 자립운영방안이 확보가 되었을 때 승인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정위원회에서 최종 동의한 것으로 확정 후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 (양병우)	그럼 추경에 얼마를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 (정용채)	토지구입비 12억입니다
위원 : (허연)	미래인력양성센터는 호남권에서 우리 대학만 응모를 해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토지 구입비 12억이 승인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 (최옥채)	학교에 땅이 많이 있지 않나요?
위원 : (정용채)	정읍캠퍼스를 중심으로 차로 5분내 거리에 관련 연구소 3개가 있어 연구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을 구축하면 전북대학교 발전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박성수)	정읍캠퍼스 부지가 협소하여 캠퍼스 안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캠퍼스와 붙어있는 LH 소관 토지가 있었고 그 땅을 정읍시에서 사주려고 했으나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땅을 사줄 수가 없어서 학교가 땅을 구입하면 건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건이 기획위원회를 거친 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그동안 시설사업에 자체 대응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10억 이상 자체시설비는 예산 편성 전에 기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건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운영비를 요구하면 안 되고 자립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조건으로 동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재무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전례 없이 이 땅을 기재부에서 구입할 것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기재부에서 땅을 구입하고 전북대로 관리 이관해주면 12억을 아낄 수 있고 다음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전체)	동의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양병우)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 (이인혜)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양병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양병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전체)	동의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임금협약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 (이인혜)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임금협약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양병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허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 (박성수)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임금협상을 연말에 진행해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자라든지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었는데 빨리 진행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재정위원회를 꼭 거쳐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연히 학교 재정을 전체적으로 보는 최고 위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주셔서 원만하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임금협상을 일찍 진행해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예측 가능한 임금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난 회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히 타협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 (주상현)	앞에서 대학회계직 정원이 호봉제 174명, 연봉제 183명이었는데 임금협약안에는 호봉제 156명, 연봉제 1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인사팀장 : (이인혜)	협약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적용은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회계직 정원에는 기간제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어 인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 (최옥채) 금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 : (박성수) 네, 소급 적용 받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추가 질의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전체) 동의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사항으로 지난 재정위원회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팀장 : (백유선)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보완점**」에 대하여 보고함.

위원장 : (양병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유명환) 아직도 CBNU로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기획팀장 : (백유선)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양규혁)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굉장히 지도교수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희 과의 경우 아예 안 맡는 교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신임교수가 많은 인원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씩 맡아서 지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담이 되고 지도를 맡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감 있는 교수 몇 명만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쪽은 실험이나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쓸 때도 읽어주고 도와줘야 하니 굉장한 어려움과 부담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자연과학 쪽은 함께 실험, 연구를 진행하며 지도교수와 지도유학생 상호 간 좋은 도움이 되지만 인문사회 쪽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장학금에 대해 상세히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교가 거점 국립대 중 장학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재정기획팀장 : 이 부분은 공시자료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백유선)

위원장 : (양병우) 전체 액수 자체는 많아도 1인당 평균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 (양규혁) 비율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네, 논의된 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재정계획이 더욱 충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지난 회의 때 조건부로 가결했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間)서명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결정된 바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까지 주상현, 김용우, 유명환 위원님이 간(間)서명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 : (전체) 동의합니다.

위원장 : (양병우) 이에 주상현, 김용우, 유명환 위원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 (이경환)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 2022. 5. 3.(화)

위 원 장 : **양 병 우**

간 사 : **이 경 환**

기 록 자 : **부 찬 미**